2014 아트선재 라운지 프로젝트 #1:

사이먼 몰리 "북-페인팅"



● 기간: 2014 년 3 월 ′	7일 (금) - 3월 23일	(일) ● 관람시간: 오전 11시 - 오후 6시
● 주최: 아트선재센터	● 기획: 사무소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 권의 책은 우리 내면의 얼어붙은 바다를 깨뜨리는 도끼여야만 한다." - 프란츠 카프카

나는 나의 작업을 더욱 더 넓은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 연계시키고 싶다. 나의 작업을 위해 선정하는 책들은 작업이 전시되는 장소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고른 것들이거나, 나에게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것들이거나, 두 가지 경우 모두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북-페인팅〉의 크기는 실제 책이나 출입구 혹은 창문의 크기와 동일하다. 그 시각적 효과는 단색적이다. 거리를 두고 보노라면 관람객은 직사각형의 색채만 보게 될 뿐이지만 거리를 좁혀갈수록 텍스트와 이미지를 볼 수 있게 된다. 페인팅에 쓰는 색채를 선정하기까지는 순전히 직감에 의존하거나 책 자체의 주제나 본래의 표지, 책의 역사적 시기, 그리고 그 작품들이 본래 전시됐던 장소들을 고려하기도 한다. 텍스트와 이미지는 항상 배경에 비해 한 톤(tone)만 어둡게 칠하며 이미지는 단순한 어둠-밝음 대비로 환원된다. 텍스트와 이미지는 보통 물감을 여러 겹 입힘으로써 부조로 구축된다. 그 결과 작품 표면의 정보에 대한 '독해'나 처리는 더욱 '촉각적'이게 된다. 시각에 의존하기보다는 촉감에 의존하게 된다.

나는 자기표현에 특별히 흥미를 갖고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한 매체가 지니는 표현적 가능성이다. 나는 속도를 늦춰 시각적 반응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으며 보는 것과 읽는 것 간의 차이를 흐리고 싶다. 나는 인물과 배경 간의 관계, 즉 관심이 집중되고 '읽혀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간의 차이를 혼란 시킨다. 내가 만들어내는 시각적 효과는 불분명하다거나 변형 중에 있다고 묘사될 수 있다. 나는 고정된 형태가 아닌 과정에 관심을 갖는다. 나의 작업들은 또한 더 상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북-페인팅〉은 '유령 책'이나 망령, 즉 어떤 '사이'에 존재하는 언캐니한(uncanny) 존재들과도 같다. 어쩌면 이 작업은 오늘날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의해 압도당하고 있는 책 기반 아날로그 문화에 대한 나의 애가(哀歌)이기도 하다. -사이먼 몰리

사이먼 몰리는 영국 출신의 작가로 2010 년부터 한국에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다. 옥스퍼드에서 근대사를 공부하고, 골드스미스에서 순수미술을 전공했으며, 사우스햄트에서 자신의 작업과 관련하여 동아시아 철학과 미학 관념에 대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런던 아트 퍼스트, 도쿄 다구치 파인 아트, 디종 뮤제 데 보자르에서 개인전을 가졌고, 포츠난 비엔날레(2012)에 참가했다. 몰리는 회화를 중심으로 책, 조각, 영상,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다. 『벽에 쓰기: 현대미술에서의 글과 이미지(Writing on the Wall: Word and Image in Modern Art)』 (2003)를 저술했고, 화이트채플 시리즈 중 『숭고(The Sublime)』 (2010)편을 편집하기도 했다. 현재 단국대학교에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www.simonmorley.com

2014 Artsonje Lounge Project #1: Simon Morley, *Book-Painting*

Period: 7 March - 23 March, 2014
Hosted by Artsonje Center
Curated by Samuso
Arts Council Korea

'A book must be the axe for the frozen sea within us.' - Franz Kafka

I want to connect my studio practice to broader cultural and historical contexts. The books I select for my work are chosen in relation to the specific cultural context of the locations in which the paintings are exhibited or because they're personally significant to me – or both. The size of the 'Book-Paintings' is that of a real book, a doorway, or a window. The visual effect is monochrome. From a distance, the viewer sees only a rectangle of colour, but when they move closer they begin to see text and image. The colours I choose for the paintings are arrived at in several ways - purely intuitively, or in relation to the subject of the books themselves and their original covers, the historical period of the books, and the place in which the works were originally exhibited. Text and image are always painted only a tone darker than the ground, and the image is reduced to a simple dark-light contrast. Text and image are usually built up into relief by applying several layers of paint. The result is that the 'reading' or processing of the information on the work's surface is more 'tactile' - rather than that of sight, it depends on the sense of touch.

I'm not especially interested in self-expression. What endures is the expressive potential of a medium. I want to slow down and complicate visual response, and blur the difference between seeing and reading. I confuse the figure-ground relationship - the difference between what is focused on and 'read', and what is not. The visual effect I produce can be described as indistinct or in metamorphosis. I am interested in process not fixed forms. My works can also be interpreted more symbolically: the 'Book-Paintings' are like 'ghost books' or spectres - uncanny presences in an in-between. Maybe they are also my elegy to an analogue book-based culture that is now being overwhelmed by digital technology.

- Simon Morley

Simon Morley is a British artist who had been living in South Korea since 2010. He studied Modern History at Oxford University before studying Fine Art at Goldsmiths, University of London. He recently completed a PhD at the University of Southampton in which he related his studio practice to East Asian philosophical and aesthetic ideas. He has had numerous solo exhibitions, most recently at Art First, London, Taguchi Fine Art, Tokyo, and the Musée des Beaux Art, Dijon, France. In 2012 he participated in the Poznan Mediations Biennial. Most of his works take the form of paintings, however, he also uses other media, such as the book, sculpture, video and installation. Morley is also a writer, and is the author of 'Writing on the Wall: Word and Image in Modern Art' (2003), and editor of 'The Sublime: Documents in Contemporary Art' (2010). He teaches at Dankook University, South Korea. www.simonmorley.com

87 Yulgok-ro 3-gil Jongno-Gu Seoul 110-210 Korea / +82 2 733 8945 / www.artsonje.org

